



운상좌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②

소참(小參)·조참(早參)·만참(晩參)

상당범어 다음에는 소참(小參)·조참(早參, 朝參)·만참(晩參)·보설(普說) 등이 있다. 오늘은 소참·조참·만참에 대하여 탐구해 보도록 하겠다.

상당범어가 정식 범문으로서 법당에서 행한다면 소참·조참·만참은 '작은 규모' 혹은 '약식(略式) 범문'으로서 청중이 많으면 법당에서 하고 적으면 방장에서 한다. 특히 그 가운데 소참범문은 주지가 수시로 행하는 간단한 범문으로서 일정한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언제 어디서나 범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했다. 어떤 격식도 없으며 일상적인 옷차림으로 한다.

소참·조참·만참 등은 상당범어와 같이 고직이나 공안을 제창(提唱, 公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하여 범문하는 것)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선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나 지식, 공안과 관련된 선화(禪話), 또 경전의 구절을 강의하기도 한다. 상당범어보다는 쉽고 편안한 편이다. 편안한 형식을 통하여 상당범어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충, 보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상당범어를 통해서 정법안을 갖추고, 기타 소참·조참 등을 통해서 선과 공안, 화두 참구, 수행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과 지식 등을 보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소참과 조참, 만참의 성격과 그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관련 연구서와 청규를 참고해 보면 조참과 만참을 합하여 소참이라고 서술한 곳도 있고, 각각 다른 것으로 서술한 곳도 있다. 최법해 역주 <고려관 선원청규 역주> 50쪽에는 "소참이 아침에 행하면 신참(晨參, 早參)이며, 밤에 행하면 만참(晩參)"이라고 하여, 조참과 만참을 통칭 소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본 고마자와대학(駒澤大學) 선학대사전 편찬소에서 편찬한 <선학대사전>(大修館 발행) 소참항목

편안한 형식으로 상당범어 보완

선지식, 선화, 경전 구절 강의

에는 "기합원대중, 조참석취(其團院大眾, 朝參夕聚, 선원의 모든 대중들은 아침에 참문하고 저녁에 모여 참문함)"라는 <선문규식>의 내용을 인용해 "당대(唐代)에는 수시로 하는 범문을 소참이라고 했는데 송대에 이르러서는 저녁범문인 만참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참이 송대에 이르러 만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조참과 만참을 통칭 소참이라고 한다는 말은 없다.

한편 1338년에 편찬된 <최수백장청규> 주지장에는 별도로 만참과 소참 항목을 두어 설명하고 있고, <선림비용청규>나 <선림상기전>에도 소참과 만참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 본다면, 수시범문(隨時法門)인 소참과 아침 범문인 조참, 그리고 저녁 범문인 만참은 각각 따로 있었는데, 북송대에 이르러 소참은 만참으로 통폐합됐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대참과 소참 범문을 구분할 때는 상당범어는 대참, 기타는 모두 소참범문으로 규정했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고증해야할 문제이나 여기서는 이 정도 고증에서 머물고자 한다.

주지가 수시로 격식없이 열어

소참은 말 그대로 '소략한 범문' '작은 규모의 범문'으로서 주지(방장)가 수시로 행하는 범문이다. 때와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격식이 없는 설법인데, 대중이 많으면 법당에서, 적으면 방장실이나 중료(衆寮, 큰방, 대중방)에서 했다. 약간의 격식을 갖추는 때도 있고, 차를 마시면서 좌담형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작무(作務, 보청, 율력) 중에 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즉석 범문, 즉흥적인 범문으로서 청중이 어느 정도만 모여도 했던 것이 소참범문이다.

<최수백장청규> '주지' 장(章) 소참 항목에는 "소참범문을 하는 장소는 처음부터 정해진 곳이 없다. 대중이 많으면 적은지(多少)를 헤아려서 침당(寢堂, 방장, 주지실)에서 하기도 하고 법당에서 하기도 한다(小參, 初無定所, 看衆多少, 感就寢堂, 感就法堂)"라고 하여, 청중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장소를 바꾸어 가며 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참범문도 후대에는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면서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기에 이르렀다. 자각종색의 <선원청규>(1103년) 2권 소참장에는 "소참은 초야(初夜)에 종이 울리면 침당(寢堂, 방장, 주지실)에 자리를 마련한다. 지사(知事, 감원, 유나 등 6지사)와 대중들이 운집하며, 빈주(賓主, 범문을 듣는 대중과 주지)가 서로 묻고 답하는 것 등은 모두 조참과 같다"라고 하여, 시간은 초야 즉 저녁 7시에 했으며, 그 형식은 주지가 편안하게 설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대중들이 의문 나는 점을 묻고(질문) 답하는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소참범문을 하는 시간도 주로 저녁 공양 후에 했다. 저녁 예불과 공양을 마친 다음에 했던 것은 시간적으로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난 이때가 비교적 한가해서 선화(禪話)를 나누기에 적합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장소도 거의 주지의 거실인 방당에서 한 것은, 방장이 주지로서는 편리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방장실이 얼마나 크길래 거기서 한다는 것일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불교가 흥성했던 1000년 전 당말 송대의 방당은 매우 커서 조계사 대웅전에 비금갈 정도(5칸)였다.

특히 남송 때 5산 가운데 하나였던 경산사(주지는 대혜종고)와 천통사(주지는 광지정각), 영은사, 아륙왕사 같은 경우는 방장실이 전방장(前方丈)과 후방장(後方丈)으로 나누어져서 두 체나 되었다. 후방장은 용도가 주지의 거실, 침실이어서 크지 않으나, 전방장은 점건실 겸 소참범문 등을 하는 장소로서 매우 컸다(오산선찰도 참고). 물론 오늘날 중국 사찰의 방당은 크지 않다. 지금 일본 교토(京都)에 있는 임제종 대본산인 묘사(妙心寺), 천통

언제 어디서나 해야 하면 하는 소참범문



2005년 부산 범어사 선선대회법회에서 조실 지유 스님이 범문하고 있는 모습.

사(天龍寺) 방장도 매우 커서 조계사 대웅전의 1.5 배나 된다.

소참범문은 상당범어처럼 고직이나 공안을 제창하기도 하고, 또는 선어록이나 경전의 한 단락을 강의하기도 하는데, 주로 선원 생활과 규칙, 법화(法話), 수행자의 자세, 행동거지 등 교훈적인 것들이 많다.

<선원청규> 2권 소참장에는 "(공안을) 제창(提唱, 제시, 설법)하며 그 밖에 위로는 지사와 두수로부터 아래로는 사미와 행자에 이르러까지, 무릇 대중 가운데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마땅히 주의·훈계해 바로 잡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걸을 때는 팔을 흔들고 걸으면 안 된다. 합장할 때는 두 손을 합하여 가슴에 댄다. 잠 잘 때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잔다. 와구와 의복은 항상 단정히 해야 한다. 자기 자리가 아니면 함부로 옮겨 다니지 마라. 선당 안에 모여 한가하게 이야기 하지 마라. 세면하면서 침을 뱉거나 소리를 내지 마라" 등 행동거지와 관련된 것이 많다.

수행자 교육 방법으로 활용

송대에 와서 횡수 전례화

주지는 상당범어에서는 할 수 없는 소소한 것들을 모두 소참을 통하여 했는데, 이는 수행자 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가훈(家訓)이나 또는 가교(家敎, 가정 교육)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소참을 가훈(家

訓) 또는 가교(家敎)라고도 한다. 물론 수행자들도 소참을 통하여 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 나가는 한편 인격을 도야하고 대중생활의 규율과 예의 등을 다져 나간 것으로 본다.

소참은 송대에 와서는 그 명칭이 저녁 범문인 만참(晩參)으로 바뀌어지고, 또 횡수도 매일 했던 것이 5일에 한 번(1달에 6회), 즉 3·8·13·18·23·28일로 정례화 되었다. 3·8일에만 했다고 하여 '3·8만참'이라고도 한다.

하루의 시작을 여는 조참

조참(早參)은 아침 범문이다. 주지가 공양 후에 수행승들을 모아 놓고서 행하는 범문으로서, 대중들은 아침 공양이 끝나면 작무(作務, 보청, 율력) 즉 청소를 한다. 그런 다음 북을 치면 대중들은 조참 장소로 집합한다. 물론 전날 저녁에 다음 날 조참이 있음을 알리는 조참패(柝)를 법당과 방장 혹은 승당(僧堂, 禪堂)과 중료(衆寮, 큰방, 대중방) 등에 건다. 조참은 범문 겸 그날 대중들이 공자해야할 사항을 알리기도 한다. 하루를 시작하는 범문이므로 주로 법당에서 한다. 그리고 상당범어가 있는 날에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 후대에는 거의 상당범문에 비금가는 규모, 비금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서 조참은 곧 상당범어로 인식되었다.

만참, 수시로 열리던 소참의 정례화

만참은 저녁 범문으로서 당대(唐代)에 수시로 행하던 소참이 만참으로 정례화 된 것인데, 그렇다고 소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점심 공양

후에 큰방 즉 대중방인 중료에서 차를 마시면서 범문했던 것을 본다면 만참 외에 소참도 횡수는 줄었지만, 종종 있었다고 보여진다.

만참은 초저녁에 주지가 수행자들을 모아 놓고 행하는 범문이다. 만참은 어느 자료에는 포시(哺時, 오후 4시)에 했다고도 하고, 또 혼종(昏鐘, 6시 45분)이 울리면 했다고도 하고, 초야(初夜) 즉 저녁 7시에 했다고도 해서, 일정치 않다. 이런 차이는 소참이 만참으로 이전되는 과정, 그리고 범문 시간도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달랐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참(晩參)도 소참이나 조참처럼 고직이나 공안 등을 제창하기도 하고 또 훌륭했던 선사들의 생애와 가르침, 선에 관한 이런 저런 고사(故事) 등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총림의 여러 가지 불사와 관련된 일 등을 거론하기도 한다. 소참과 아무 다름이 없었다고 보면 된다.

상당범어는 반드시 들어야할 의무사항이지만 소참·조참·만참 등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듣고 안듣고는 개인의 사정과 자력에 맡기는데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범문은 모두가 들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지(방장)의 범문을 소홀히 한다든가, 듣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것은 수행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서 공부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적으로는 주지의 범어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윤창환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9@hanmail.net

당신도 설법을 연수하면 사람 마음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정체성 확립 및 음성 표정 연출 등 이론과 실습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격려사), 회의, 토론, 최면 등 실습
- 인간관계에 필요 충분조건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교육일정

- 중 합 반 : 5인반, 10인반
- 개인지도 : 1인 개인지도, 2인반, 3인반

연수안내

- 기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 강 의 : 중 합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개인지도 - 개인 상담후 강의시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우물 철학박사 김철회
사단법인 한국산악가운술려협회 이사장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韓國 說法 研究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중,영,한 3개국어판! 중,영,한 3개국어판!
< 불조정맥 > < 화두/Hwa-du >
중,영,한 3개국어판! 중,영,한 3개국어판!
www.zenparadise.com 031)534-3373

당신도 설법을 연수하면 사람 마음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정체성 확립 및 음성 표정 연출 등 이론과 실습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격려사), 회의, 토론, 최면 등 실습
- 인간관계에 필요 충분조건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교육일정

- 중 합 반 : 5인반, 10인반
- 개인지도 : 1인 개인지도, 2인반, 3인반

연수안내

- 기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 강 의 : 중 합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개인지도 - 개인 상담후 강의시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우물 철학박사 김철회
사단법인 한국산악가운술려협회 이사장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韓國 說法 研究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성지순례!!

1월 ~ 2월 마감이 끝났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조기예약 기념 특전

- 5월 12일, 16일 (단2회 출발)
- 3월 15일 마감
- 미안마 성지순례 1,490,000원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해호 6일

3월 15일 출발
지장도량, 광음도량 성지순례 1,290,000원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6일

3월 14일, 4월 5일 출발
미안마성지순례 1,69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이티오 7일

미안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안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영보이

다영보이에서는 사찰 및 스님, 대중불자님들께 신묘한 새로운 출발과 더불어 "설날 특별 선물 보급가"로 정성껏 준비한 **순수자연 야생 보이차**를 공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영보이는 중국운남성 절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 고목림 지대인 해발 1,200m~1,500m 고지의 자연상태에서 자란 야생차 잎을 채취하여 제조하였습니다.

베트남 정부와 야생 고목림 지역 차 채취 허가 및 독점계약, 베트남 차협회가 인증하는 야생차증명서를 받았으며, 베트남 차창에서 직접 수확, 저장 보관 생산, 철저한 품질검사를 마친 정식 수입업체의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차입니다. 보이차의 가치는 얼마의 기간만큼 저장, 숙성 했는지 이것으로 정해집니다.

다영 보이차는 1996년부터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숙성시키고 철저한 관리감독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 만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중금속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

50g, 100g, 330g

신차 38,000원 신차 65,000원 병차 99,000원 (500개 한정수량)

• 판매원 : 마하를 02)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빌 1507호
www.dayoungtea.co.kr
www.다영보이.kr